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 장 한덕원 주무관 정성진	042-481-8254 042-481-8562
OPEN	2020년 12월 30일(수)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특허청은 '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1.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예정)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12월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된다.

○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정성진 주무관(☎ 042-481-85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